

인텍플러스

Bloomberg Code (064290 KS)

Reuters Code (064290.KQ)

주가 (11월 26일)

13,650원

시가총액

172.2십억원



조민서 연구원

02-3772-1539

✉ minseo.cho@shinhan.com

Corp. Day 후기: 러브콜 쇄도

3Q20 매출액 +128.5%, 영업이익률 17.4% 달성

- 3Q20 매출액 137억원(+128.5% YoY, +24.3% QoQ), 영업이익 24억원(흑전 YoY, +85.8% QoQ) 달성
- 반도체 검사장비 부문 호실적,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부문 전방 투자 부재 영향 (중국 고객사 투자 지연), 이차전지 검사장비 전방 투자 부재 영향
- 3Q20말 수주 잔고 241억원 (반도체 패키지 71억원, 미드엔드 140억원)

고성능 비메모리 패키지/기판 외관 검사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 미드엔드(반도체 기판) 검사장비가 실적 견인 : 매출액 19년 38억원 → 1Q20 26억원 → 2Q20 36억원 → 3Q20 62억원
- 고객사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경쟁 우위 확보, 신규 고객사 추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이어질 전망

인텍플러스 실적 추이 및 전망

	1Q19	2Q19	3Q19	4Q19	1Q20	2Q20	3Q20	4Q20F	2017	2018	2019	2020F	2021F
매출액 (십억원)	7.9	13.9	6.0	12.8	12.9	11.1	13.7	19.4	24.3	16.1	40.5	57.1	81.1
반도체 검사장비	7.5	9.5	5.3	6.8	7.3	8.7	12.0	16.5	19.2	8.0	29.1	44.5	63.8
패키지, 모듈	6.4	9.0	3.6	6.2	4.7	5.1	5.7	6.0	-	-	25.3	21.6	24.8
미드엔드	1.0	0.5	1.7	0.5	2.6	3.6	6.2	10.6	-	-	3.8	23.0	39.0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0.0	3.2	0.3	4.2	0.0	1.4	0.5	0.6	2.5	4.9	7.7	2.6	4.6
기타	0.4	1.2	0.4	1.8	5.5	1.0	1.0	2.2	2.6	3.3	3.8	9.8	12.6
이차전지 검사장비	0.0	0.0	0.0	3.3	4.9	0.0	0.4	1.6	-	-	3.3	6.9	9.6
그 외	0.4	1.2	0.4	(1.5)	0.6	1.0	0.6	0.7	-	-	0.4	2.9	3.0
영업이익	0.6	2.6	(0.4)	1.9	1.3	1.3	2.4	4.0	0.0	(8.3)	4.7	9.0	16.6
당기순이익	0.5	3.2	(0.2)	2.0	1.5	1.6	3.5	3.1	(0.3)	(6.5)	5.4	9.6	11.8
매출액 증가율 (% YoY)	125.2	602.6	(1.0)	179.5	63.9	(20.4)	128.5	52.0	45.3	(33.7)	151.6	40.8	42.0
영업이익 증가율	흑전	흑전	적전	흑전	128.0	(51.5)	흑전	115.5	흑전	적전	흑전	91.0	85.0
순이익 증가율	흑전	흑전	적전	흑전	224.8	(51.1)	흑전	54.8	적지	적지	흑전	77.7	22.8
영업이익률 (%)	7.3	19.1	(6.2)	14.6	10.1	11.6	17.4	20.7	0.1	-	11.6	15.7	20.5
순이익률	5.8	23.1	(3.9)	15.6	11.5	14.2	25.5	15.9	-	-	13.4	16.9	14.6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추정

1사업부(반도체 패키지, 모듈 검사장비 부문) 업데이트

- 3Q20 고객사별 매출 비중: 국내 S전자 50%, 북미 I사 및 중화권 OSAT 50%
- 신규 수주 중 의미있는 고객: 북미 A사 (대만 후공정 자회사), 국내 H사
- 대만 T사는 현재 데모 테스트 중. 2021년 중 데모 완료 후 벤더 등록 목표
- 향후 중화권 OSAT향 매출 증가하면서 I사의 매출 비중 감소 전망
- 비메모리: OSAT 설비 투자 진행 예상. Large form factor 검사, Package 6면 검사 기술 수요 긍정적
- 메모리: 딥러닝 검사 기술 수요 긍정적

2사업부(미드엔드 =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장비 부문) 업데이트

- 3Q20 고객사별 매출 비중: 대만 U사 50%, 국내 S전기 30% 등
- 신규 수주 중 의미있는 고객: 일본 I사 (기판업체), 대만 OSAT (PLP 개발 중)
- 2021년도 5G, HPC, 이중 반도체 중심으로 고객사 신규 투자 지속 예상
- 기판업체의 경우 시장 선점 위해 설비 투자 서두르는 경향
→ 검사장비 빠른 대응이 중요, 경쟁사 대비 우위 있음.
- 최근 ABF 노출형 BGA 기판에 대한 측정 이슈 발생. 검사장비 솔루션 제공 가능한 곳은 동사와 다카오카(일)로 소수. 동사의 WSI 기술이 고객사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신속하게 3D 측정. 경쟁사는 3D 측정 불가, 정확도 인정 받으면서 다양한 고객사 관심 확대되는 중

3사업부(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부문) 업데이트

- 올해 기대했던 중국 B사 투자 건 지연 (B11), B12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국내 S사는 올해 보완 투자만 진행. 21년 투자 재개 기대

4사업부(이차전지 검사장비 부문) 업데이트

- 3Q20에 신규 고객사 추가. 국내 L사 라인 내 자동 검사 모듈 솔루션 납품.
- 대당 가격 높지 않지만, 라인당 필요 개수 많음
- 기존 고객사인 S사와 신규 L사 모두 해외 투자 전망으로 중장기 수혜 기대

[주요 Q&A]

CAPA

- 현재 매출액 기준 1,000억. 향후 Capex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할 시기 다가오고 있음

북미 I사 관련해 수주 변동사항 있는지?

- I사의 전략 변화는 전공정 관련. 파운드리 외주 확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 동사가 납품하는 장비는 후공정에 적용. 아직까지 수주에는 큰 변화 없음.

고객사 내 점유율, 경쟁사 현황

- 반도체 패키지 검사 경쟁사: ICOS (KLA의 브랜드)
- 미드엔드 검사 경쟁사: 다카오카(일)
- 이차전지 검사 경쟁사: SFA
- 고객사의 신규 검사 과제에 대해서는 동사의 솔루션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ABF 노출형 BGA 기판 검사, 이차전지 공정 내 자동화 검사 모듈
- 기납품 장비의 레퍼런스 인정되면서 신규 고객사 내 점유율 강화, 신규 고객사 영업 긍정적 → Large form factor 검사, 이중반도체에 대한 Package 6면 검사

마진

- 매출 증가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 발생
- 고사양 장비의 이익률 높음
- 다만 환 영향은 내년이 올해대비 불리할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조민서)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